

한국 정치학 연구의 현황과 특성: 2015–2024

온라인 부록

2026년 2월 12일

차례

A.1	방법론적 상세	4
A.1.1	데이터 수집 및 코딩 방법론	5
A.1.1.1	데이터 출처 및 수집	5
A.1.1.2	LLM 기반 증거유형 분류	6
A.1.1.3	인과추론 방법 탐지	8
A.1.1.4	구조적 토픽 모형 명세	8
A.1.1.5	연구비 추출 방법론	9
A.1.1.6	저자 특성 데이터 수집	10
A.1.1.7	인용 분석 상세	11
A.1.1.8	통계 분석 상세	11
A.2	무엇을(What): 주제 분석 보충 자료	11
A.2.1	학술지 목록	11
A.2.2	전체 토픽 목록	20
A.2.3	토픽 모델 시각화	23
A.2.4	색인별 최다 인용 저자	23
A.2.5	공통 인용 네트워크 분석	23
A.2.6	토픽 상관관계 추세	26

A.3	어디서(Where): 지리적 초점 보충 자료	26
A.3.1	지리적 초점 추출 상세	27
A.3.2	국가별 지리적 초점 분포	27
A.3.3	지역별 집중도	28
A.3.4	지리적 초점의 시계열 변화	28
A.4	어떻게(How): 방법론 분석 보충 자료	29
A.4.1	표본 크기에 대한 주	29
A.4.2	3원 비교	30
A.4.3	인과추론 방법론 해석	30
A.4.4	세부분야별 방법론 차이	30
A.4.5	KCI 학술지 이질성	32
A.4.6	SSCI 학술지 상세	34
A.5	누가(Who): 지식 생산자 보충 자료	34
A.5.1	저자 특성 요약	35
A.5.2	박사 취득 국가별 방법론	36
A.5.3	성별과 코호트	37
A.5.4	학부 출신별 박사 취득 국가	37
A.5.5	학술적 재생산	38
A.5.6	기관 및 학부 배경별 방법론	38
A.5.7	학부 출신 기관별 인용 패턴	39
A.6	언제(When): 시계열 분석 보충 자료	41
A.6.1	연도별 증거유형 분포	41
A.6.2	연구비 수혜율 추세	42
A.6.3	PDF 가용성과 표본 선택	42
A.6.4	KCI 학술지 이질성 추세	44
A.6.5	코호트별 방법론	44
A.7	왜(Why): 메커니즘 분석 보충 자료	45
A.7.1	연구비 출처 분포	45

A.7.2	연구비 상태별 방법론	46
A.7.3	분해 분석: 전체 결과	46
A.7.3.1	주제-방법론 분해	46
A.7.3.2	학술지 수준 분산 분해	48
A.7.4	저자 내 색인별 방법론 비교	49
A.7.5	저자 내 분석 전체 결과	51
A.7.6	저자 내 인용 분석	51
A.7.7	인용 영향력 분석	52
A.8	강건성 검토	52
A.8.1	연구비-방법론 분해 민감도	53
A.8.2	한국 저자 식별 방법 민감도	54
A.9	정책적 맥락 상세	55
A.9.1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감소	55
A.9.2	국제 비교	55
A.10	한계 상세	55
A.10.1	측정 한계	55
A.10.2	표본 선택 한계	56
A.10.3	SSCI 이질성	56
A.10.4	인용 분석 한계	56
A.10.5	기타 한계	57

A.1 방법론적 상세

본 부록은 본문의 분석을 보충하는 상세 자료를 제공한다. 각 절은 본문의 해당 절과 연결되며, 본문 육하원칙 구조를 따른다.

부록 절	본문 연결	주요 내용
A.1 방법론적 상세	제3절	LLM 검증, 인과추론 탐지, STM 명세
A.2 무엇을	제4.1절	60개 토픽 목록, 학술지 목록
A.3 어디서	제4.2절	지리적 초점 추출
A.4 어떻게	제4.3절	3원 비교, 세부분야별 차이, 학술지 이질성
A.5 누가	제4.4절	저자 특성, 학술적 재생산, 인용 패턴
A.6 언제	제4.5절	연도별 분포, 추세 분석
A.7 왜	제5절	연구비 분해, 저자 내 비교
A.8 강건성	제5절	민감도 분석
A.9 한계	제6절	측정·표본·일반화 한계

표 1에 본 연구의 주요 통계를 정리하였다.

표 1: 주요 통계 요약

지표	KCI	SSCI	해석
표본 규모			
총 논문 수	9,598	81,890	10년간 출판물
방법론 코딩 표본	9,292	69,250	LLM 분류 완료
한국 저자 SSCI	—	728	3원 비교용
주요 격차			
양적 방법론 비율	21.2%	39.1%	17.9%p 차이
인과추론 방법	0.44%	6.12%	14배 차이
저자 내 격차	25.7%	67.0%	41.3%p (N=269)
시계열			
토픽 상관 (2015→2024)	0.18→0.04		수렴 아닌 분화
양적 비율 변화	+1.2%p	+1.6%p	격차 유지

A.1.1 데이터 수집 및 코딩 방법론

본 절에서는 제3절의 데이터 및 방법 설명을 보충하였다.

A.1.1.1 데이터 출처 및 수집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출처를 정리하였다.

표 2: 데이터 출처 및 수집 정보

데이터 출처	수집 기간	접근 방법	N
<i>KCI</i> 코퍼스			
KCI 메타데이터	2015–2024	KCI API	9,598
PDF 원문	2015–2024	학술지 웹사이트/기관 저장소	6,113
연구비 추출	—	PDF 텍스트 추출	2,582
<i>SSCI</i> 코퍼스			
Web of Science	2015–2024	WoS API	69,248
SSCI-한국 식별	—	이름/소속 매칭	728
저자 정보			
KRI (한국연구자정보)	2024	KRI 웹 스크래핑	2,616
이중출판 저자 매칭	—	이름/소속 매칭	269
보조 데이터			
인용 정보	—	논문 참고문헌 추출	~43,700
학술지 메타데이터	—	KCI/WoS	54 + 173

KCI와 SSCI 메타데이터는 2024년 8–9월, KRI 저자 정보는 10월, PDF 원문은 7–11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PDF는 학술지별 접근 가능성에 따라 KCI 논문의 63.7%에서 확보되었다. 모든 메타데이터는 수동으로 품질을 검토하였고, LLM 분류는 500건 인간 코딩 표본과 비교해 검증하였다(정확도 87.7%). 저자 매칭에는 보수적 규칙을 적용해 거짓양성을 최소화하였다.

A.1.1.2 LLM 기반 증거유형 분류

GPT-4o-mini를 사용하여 논문 초록을 방법론, 증거유형, 세부분야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온도(temperature) 설정은 API 기본값(1.0)을 사용하였다. 분류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다:

Classify these political science articles. For each, provide:

1. methodology (HOW the research is conducted):

- Options: [Case study/Small N, Critical Theory/Poststructuralist, Ethnographic, Experimental, Formal, Interpretive, Normative, Statistical-Observational]
- Experimental = researcher manipulates treatment (RCTs, lab/survey experiments)
- Statistical-Observational = quantitative analysis WITHOUT manipulation
- If primary data is interviews/documents, use Case study or Interpretive

2. evidence: [Quantitative, Qualitative, Mixed, No empirical evidence]

- Normative methodology should almost always = ``No empirical evidence''

3. subfield (WHAT the research is about):

- Options: [American Politics, Kore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Methodology, Political Theory, Public Administration/Public Policy, Other]
- Korean Politics = South Korea domestic politics
- Comparative Politics = cross-country or non-US/non-Korean single-country studies

Output format: ID|methodology|evidence|subfield

검증을 위해 층화 무작위 표본 200편(KCI·SSCI 각 100편)에 대해 인간 코딩과 LLM 분류를 비교하였다. 훈련된 코더 2명이 독립적으로 분류한 뒤 불일치는 토론으로 해결하였으며, 해결 전 코더 간 일치도(Cohen's κ)는 0.78이었다.

표 3: LLM 분류 검증 결과 (N = 200)

범주	정밀도	재현율	F1	N
양적	0.89	0.85	0.87	52
질적	0.82	0.79	0.80	38
혼합방법	0.71	0.65	0.68	17
해석적	0.78	0.82	0.80	45
규범적	0.75	0.71	0.73	24
경험적 증거 없음	0.83	0.88	0.85	24
매크로 평균	0.80	0.78	0.79	200

분류 혼란은 주로 해석적과 질적 범주 사이에서 발생하였는데, 일부 담론 분석 연구가 어느 쪽으로든 코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분석에서는 보다 넓고 구별이 더 명확한 (F1 = 0.91) 범주(양적 vs. 비양적)로 통합하였다.

표 4는 검증 표본 84편에 대한 혼동행렬이다.

표 4: 증거유형 분류 혼동행렬 (N = 84)

인간 코딩	LLM 예측				합계
	양적	질적	혼합	무증거	
양적	20	4	0	0	24
질적	0	19	0	0	19
혼합방법	0	2	22	0	24
무증거	0	3	0	14	17

표 5: 범주별 분류 성능 지표

범주	정밀도	재현율	F1	표본 수
양적	1.00	0.83	0.91	24
질적	0.68	1.00	0.81	19
혼합방법	1.00	0.92	0.96	24
무증거	1.00	0.82	0.90	17
전체 정확도	89.3% (75/84)			

혼동행렬은 오분류가 주로 “질적” 범주로의 과잉분류에서 발생함을 보여준다. 양적 논문 4편과 무증거 논문 3편이 질적으로 오분류되었다. 그러나 양적 분류의 정밀도는 1.00으로, LLM이 양적으로 분류한 논문은 모두 실제로 양적 연구였다. 이분 변수(양적 vs. 비양적)로 통합 시 정확도는 95.2%, $F1 = 0.91$ 로 상승하며,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양적 방법론 채택률의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A.1.1.3 인과추론 방법 탐지

초록에 대한 키워드 패턴매칭을 사용하여 다섯 인과추론 방법을 탐지하였다. 이 방법을 어떻게(How) 절(제4.3절)의 인과추론 채택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6: 인과추론 탐지 패턴

방법	키워드/패턴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 “diff-in-diff”, “DiD”, “parallel trends”
회귀불연속설계	“regression discontinuity”, “RDD”, “RD design”, “discontinuity design”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IV estimation”, “2SLS”, “two-stage least squares”
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or”, “coarsened exact matching”, “CEM”
합성통제	“synthetic control”, “synth method”, “donor pool”

양성 탐지 100건을 무작위로 뽑아 수동 검증한 결과, 정밀도는 0.87이었다. 오탐은 주로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언급만 하는 방법론적 논의였다.

A.1.1.4 구조적 토픽 모형 명세

결합 KCI-SSCI 코퍼스($N = 78,846$ 논문)에 대해 구조적 토픽 모형 (Roberts, Stewart and Tingley, 2019)을 추정하였다. 이 모형을 무엇을(What) 절의 주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처리.

1. 토큰화 및 소문자화

2. 불용어 제거 (영어 및 한국어)
3. 숫자 및 구두점 제거
4. 어간 추출 (영어의 경우 Porter stemmer)
5. 어휘 정리: 문서의 0.5% 미만 또는 95% 초과에 등장하는 단어 제거
6. 최종 어휘: 12,847개 단어

$K \in \{30, 40, 50, 60, 70, 80\}$ 토픽으로 모형을 추정하고, 유보 우도 (10% 유보 표본), 의미적 일관성 (Mimno et al., 2011), 토픽 배타성으로 평가하였다. 60개 토픽에서 해석 가능성과 세분화 사이의 균형이 가장 적절하였다. 학술인용색인 (KCI vs. SSCI)을 비중 공변량으로 포함하였다:

$$\theta_d \sim \text{LogisticNormal}(\mu_d, \Sigma)$$

여기서 $\mu_d = X_d \gamma$ 이고 X_d 는 색인 지시변수를 포함한다.

A.1.1.5 연구비 추출 방법론

한국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패턴매칭을 사용하여 KCI 논문 전문에서 사사 표기를 추출하였다. 이 방법을 왜 (Why) 절의 연구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7: 연구비 원천 분류 패턴

범주	패턴 (한국어)
NRF	한국연구재단, 연구재단, NRF
대학	교내연구비, 학술연구비, 연구년
정부	정부, 부처, 국가 연구
재단	재단, 학술진흥
기타	연구비 지원 (일반)

SSCI 논문은 Web of Science 사사 표기 필드를 활용하였다.

연구비 분석의 한계. 사사 표기 기반 분석은 “연구비 미지원”으로 분류된 논문이 (a) 연구비 신청 후 탈락한 것인지, (b) 처음부터 연구비를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미지원” 다수가 연구자의 자발적 선택, 자원 제약, 또는 지원기관의 선별 중 어느 것을 반영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한계를 인정하며, 연구비-방법론 연관의 인과적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1.1.6 저자 특성 데이터 수집

본 절에서는 누가(Who) 분석(제4절)을 위한 저자 데이터 수집을 상술하였다.

한국연구자 데이터베이스. KCI 저자에 대해 다단계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한국연구재단 관리 한국연구자정보(KRI)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였다. 첫째, KCI 논문에서 고유 저자 식별자(CRT ID)를 추출하였다. 둘째, CRT ID를 국가연구자번호에 연결하였다. 셋째, 이 식별자로 KRI에서 인구통계 및 학력 데이터를 검색하였다. 연결률은: CRT ID 추출 99.98%, CRT-NRI 연결 71.3%, NRI-인구통계 검색 72.4%였다. 최종 표본은 7,620편 (KCI의 79.4%)이며, 1,895명 연구자의 인구통계와 1,703명의 박사 기관 정보를 포함한다.

성별 측정. 성별 데이터는 KRI 프로필의 자기보고 정보를 활용하였다. 연결된 1,895명 연구자 중 1,847명 (97.5%)이 성별이 기록되어 있다.

SSCI-한국 저자 확인. 기관 소속 데이터와 저자명 패턴을 사용하여 한국 출신 학자 논문 728편을 확인하였다. 이 중 단독저자 논문은 253편 (34.8%), 공저 논문은 475편 (65.2%)이다. 평균 저자 수는 2.23명으로, KCI(1.36명, 단독저자 71.5%)보다 공저 비율이 높다.

색인 간 저자 매칭. 한국어 이름-로마자화 이름 매핑과 기관 소속 검증을 결합하여 저자를 매칭하였다. 동명이인 처리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보수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1. **성명 로마자화 일치:** 한국어 성씨를 가능한 모든 영문 변환으로 매핑 (예: 이→LEE/YI/LI/RHEE/RI, 박→PARK/PAK, 김→KIM)
2. **소속기관 패턴 일치:** KCI의 한국어 소속과 SSCI의 영문 소속이 동일 기관으로 매핑되어야 함 (예: 서울대↔“SEOUL NATL UNIV”, 연세대↔“YONSEI”)
3. **이름 이니셜 일치:** 한국어 이름의 첫 글자를 영문 이니셜로 변환하여 비교 (예: 진→J, 현→H, 민→M)

예를 들어, KCI에서 “이승주”(중앙대)는 SSCI에서 “LEE S”이면서 소속에 “CHUNG ANG” 패턴이 있는 경우에만 매칭된다. 이 접근법은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매칭된 269명의 이중출판 저자는 양 색인에서 출판하는 실제 학자 수의 하한을 나타낸다.

A.1.1.7 인용 분석 상세

각 데이터베이스의 서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KCI와 SSCI 논문에서 인용 문헌을 추출하였다. 인용은 제1저자 성과 출판연도를 추출하여 저자-연도 형식으로 표준화하였다.

A.1.1.8 통계 분석 상세

KCI-SSCI 비교에서는 범주형 변수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을, 연속형 측정에 대해 t-검정을 활용하였다. 효과크기 보고: 카이제곱에는 크래머 V , 쌍별 비교에는 코헨 d . P 값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0.001 미만은 $p < 0.001$ 로 보고한다.

A.2 무엇을(What): 주제 분석 보충 자료

본 절에서는 제4절 무엇을(What) 분석을 보충하였다. KCI와 SSCI 간 주제적 차이, 토픽 모델링 결과, 인용 패턴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공하였다.

A.2.1 학술지 목록

표 8와 9는 분석에 포함된 학술지 목록을 제시한다.

표 8: 표본에 포함된 KCI 학술지 (전체 코퍼스)

학술지	N	%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362	3.8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54	3.7
세계지역연구논총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345	3.6
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98	3.1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8 - 계속

학술지	N	%
국제관계연구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96	3.1
의정연구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290	3.0
국제정치논총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82	2.9
한국정치연구	279	2.9
Asian Perspective	275	2.9
Korea Observer	259	2.7
21세기정치학회보	269	2.8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250	2.6
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	245	2.6
전략연구 (Strategic Studies)	236	2.5
국제·지역연구	236	2.5
정치정보연구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229	2.4
문화와 정치 (Culture and Politics)	207	2.2
Pacific Focus	194	2.0
국방연구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4	2.0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193	2.0
북한연구학회보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191	2.0
통일전략 (Unification Strategy)	188	2.0
오토피아 (Oughtopia)	186	1.9
新아세아 (New Asia)	181	1.9
한국정당학회보 (Korean Party Studies Review)	165	1.7
국제정치연구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65	1.7
북한학연구 (North Korean Studies Review)	159	1.7
KRINS Quarterly	153	1.6
한국동북아논총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149	1.6
현대정치연구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148	1.5
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	142	1.5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8 - 계속

학술지	N	%
통일문제연구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45	1.5
한민족연구 (Korea Association of National Thought)	140	1.5
평화연구 (Peace Studies)	133	1.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124	1.3
한국정치사상학회보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112	1.2
통일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112	1.2
국제정치학회보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02	1.1
비교민주주의연구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102	1.1
한국안보학회보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101	1.1
미래정치연구 (Journal of Future Politics)	99	1.0
한국통일학 (Korean Unification Studies)	96	1.0
선거연구 (The Study of Election)	92	1.0
사회과학연구	87	0.9
연구방법논총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81	0.8
세계정치연구 (Journal of Global Politics)	77	0.8
지역사회연구 (Local Society & Politics)	48	0.5
기타 소규모 학술지	424	4.4
합계	9,598	100.0

표 9: 표본에 포함된 SSCI 학술지 (전체 코퍼스)

학술지	N	%
Social Science Quarterly	1,229	1.8
Journal of Politics	1,185	1.7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106	1.6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9 - 계속

학술지	N	%
Global Policy	996	1.5
Electoral Studies	982	1.4
Political Geography	960	1.4
JC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920	1.3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5	1.3
Party Politics	838	1.2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835	1.2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8	1.2
Public Choice	827	1.2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780	1.1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60	1.1
Politics and Governance	758	1.1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745	1.1
Democratization	734	1.1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731	1.1
Political Psychology	729	1.1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95	1.0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91	1.0
Political Studies	687	1.0
Journal of Peace Research	679	1.0
Political Quarterly	672	1.0
Political Behavior	666	1.0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665	1.0
Europe-Asia Studies	665	1.0
West European Politics	664	1.0
Public Administration	644	0.9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44	0.9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9 - 계속

학술지	N	%
International Politics	622	0.9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616	0.9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608	0.9
Nationalities Papers	607	0.9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601	0.9
Geopolitics	597	0.9
Nations and Nationalism	595	0.9
Environmental Politics	591	0.9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552	0.8
Citizenship Studies	553	0.8
New Political Economy	537	0.8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535	0.8
Local Government Studies	532	0.8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518	0.8
Regulation & Governance	516	0.8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507	0.7
Social Movement Studies	507	0.7
Socio-Economic Review	505	0.7
American Politics Research	503	0.7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489	0.7
Governance	486	0.7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475	0.7
Lex Localis: Journal of Local Self-Government	471	0.7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471	0.7
Perspectives on Politics	458	0.7
Armed Forces & Society	451	0.7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449	0.7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9 - 계속

학술지	N	%
Survival	448	0.7
Parliamentary Affairs	447	0.7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430	0.6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426	0.6
Political Studies Review	422	0.6
Public Opinion Quarterly	421	0.6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405	0.6
Problems of Post-Communism	392	0.6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91	0.6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383	0.6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82	0.6
Policy Studies Journal	378	0.6
Review of Policy Research	372	0.5
Political Communication	365	0.5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63	0.5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360	0.5
Government and Opposition	355	0.5
Politics	354	0.5
Acta Politica	353	0.5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345	0.5
European Union Politics	344	0.5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343	0.5
Mediterranean Politics	340	0.5
Policy and Politics	339	0.5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38	0.5
Political Analysis	329	0.5
German Politics	324	0.5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9 - 계속

학술지	N	%
Journal of Human Rights	323	0.5
European Political Science	323	0.5
Research & Politics	321	0.5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320	0.5
Contemporary Politics	319	0.5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16	0.5
Policy and Society	307	0.4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6	0.4
Politics and Religion	304	0.4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4	0.4
Latin American Perspectives	301	0.4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301	0.4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299	0.4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96	0.4
International Organization	295	0.4
Cooperation and Conflict	294	0.4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293	0.4
Historical Materialism	292	0.4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2	0.4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91	0.4
Human Rights Quarterly	288	0.4
Political Theory	287	0.4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280	0.4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78	0.4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77	0.4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277	0.4
European Security	275	0.4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9 - 계속

학술지	N	%
British Politics	273	0.4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270	0.4
Journal of Public Policy	269	0.4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68	0.4
Politics & Gender	268	0.4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265	0.4
Post-Soviet Affairs	264	0.4
Economics & Politics	255	0.4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54	0.4
Policy and Internet	252	0.4
Forum: A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Contemporary Politics	249	0.4
Critical Policy Studies	249	0.4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248	0.4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248	0.4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237	0.3
Journal of Chinese Governance	233	0.3
African Affairs	232	0.3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231	0.3
Polity	229	0.3
European History Quarterly	227	0.3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26	0.3
Irish Political Studies	225	0.3
Politikon	220	0.3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8	0.3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217	0.3
Politics & Society	214	0.3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211	0.3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9 - 계속

학술지	N	%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211	0.3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08	0.3
Critical Review	206	0.3
Revista Brasileira de Política Internacional	205	0.3
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205	0.3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03	0.3
Peacebuilding	203	0.3
East European Politics	196	0.3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188	0.3
Comparative Politics	186	0.3
Revue d'Économie Politique	183	0.3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80	0.3
International Theory	180	0.3
World Politics	173	0.3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73	0.3
Politics, Religion & Ideology	174	0.3
Business and Politics	163	0.2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54	0.2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53	0.2
Journal of Policy History	128	0.2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122	0.2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115	0.2
Political Science	114	0.2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112	0.2
Ethics & Global Politics	112	0.2
Politická Ekonomie	101	0.1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95	0.1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9 - 계속

학술지	N	%
Roman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4	0.1
New Left Review	72	0.1
Historia y Política	68	0.1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65	0.1
Austr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3	0.1
Revista de Estudios Políticos	61	0.1
Philippine Political Science Journal	61	0.1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51	0.1
합계	68,300	100.0

A.2.2 전체 토픽 목록

표 10은 60개 토픽 구조적 토픽 모형의 전체 결과를 KCI 비중 내림차순으로 제시한다. KCI%와 SSCI% 열은 각 색인에서 해당 토픽의 비중을 나타낸다.

표 10: 전체 60개 토픽 목록 (KCI 비중 내림차순)

ID	토픽 레이블	KCI %	SSCI %	상위 키워드
34	한일관계	9.2	0.1	korea, japan, peace, cooperation
15	탈북자	8.9	0.1	korean, defector, refuge
25	핵 안보	8.6	0.3	nuclear, deterrence, weapon
50	중국의 글로벌 전략	8.0	1.3	china, power, region, asia
17	북한 정치	6.6	0.1	kim, regime, leadership
13	현대 전쟁과 철학	4.3	2.4	war, philosophy, moral
9	지방 거버넌스	3.5	1.6	local, govern, municipal
10	사이버안보	2.2	1.0	security, cyber, threat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10 -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ID	토픽 레이블	KCI %	SSCI %	상위 키워드
5	선거 정치	2.0	2.5	voter, candidate, campaign
56	헌법	2.0	1.8	court, judicial, constitution
3	고등교육	1.8	1.3	student, education, univer- sity
8	정당 정치	1.7	2.8	party, manifesto, electoral
2	국제관계	1.6	1.9	IR, norm, institution
51	개발원조	1.6	1.2	aid, FDI, donor
52	시장 규제	1.6	2.0	tax, corporate, market
43	정보와 군사	1.5	1.1	drone, warfare, NATO
59	문화 정치	1.5	1.5	culture, memory, narrative
19	사회운동	1.4	1.9	protest, participation, net- work
45	입법 정치	1.4	2.1	legislature, parliament, committee
16	정책 과정	1.3	2.4	policy, learning, diffusion
18	민족주의와 정체성	1.3	2.2	nation, identity, movement
31	연구방법론	1.3	3.4	research, science, journal
11	양적 방법론	1.2	3.2	model, data, regression
20	군-민 관계	1.2	1.3	military, peacekeeping, civilian
22	디지털 기술	1.2	1.1	AI, blockchain, platform
49	경제적 불평등	1.2	2.2	income, inequality, growth
57	정치이론	1.2	3.6	critique, theory, discourse
29	외교정책	1.1	1.2	Turkey, Middle East, policy
36	사회복지	1.1	1.2	pension, health, welfare
1	인권	1.0	1.1	human rights, violation
53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1.0	2.0	media, news, coverage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10 -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ID	토픽 레이블	KCI %	SSCI %	상위 키워드
55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1.0	1.8	democracy, regime, autocracy
7	분쟁과 내전	0.9	1.4	conflict, rebel, civil war
14	기후와 환경	0.9	1.7	climate, emission, energy
35	무역과 이주	0.9	1.4	trade, migrant, labor
58	선거제도	0.9	1.8	vote, PR, district
23	종교와 구소련	0.8	1.8	Russia, religion, Ukraine
37	신뢰와 팬데믹	0.8	1.7	COVID-19, vaccine, trust
38	공공서비스	0.8	2.3	corruption, public service
48	정치 리더십	0.8	2.6	leader, signaling, cost
54	포퓰리즘	0.8	2.1	populist, attitude, immigration
4	비교방법론	0.7	0.7	QCA, sanction, comparison
24	금융 위기	0.6	1.6	bank, fiscal, monetary
12	성별 대표성	0.5	1.5	women, gender, quota
27	도시와 영토	0.5	2.3	border, geography, space
30	집합행동	0.5	1.4	action, collective, rational
39	시민사회와 NGO	0.5	1.5	NGO, civil society, advocacy
41	아프리카 정치	0.5	1.8	Africa, reform, land
42	여론	0.5	2.6	survey, opinion, experiment
44	인종과 정파성	0.5	2.0	racial, partisan, polarization
46	유럽 통합	0.5	2.0	Brexit, integration, CEE
47	글로벌 거버넌스	0.5	1.8	deliberation, food, governance
26	이행기 정의	0.4	1.2	justice, victim, TJ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10 –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ID	토픽 레이블	KCI %	SSCI %	상위 키워드
40	이익집단	0.4	1.5	ethnic, interest group, minority
33	젠더와 LGBTQ+	0.3	1.2	feminist, LGBTQ, sexual
6	라틴아메리카 정치	0.2	1.0	Latin America, de, la
28	테러리즘	0.2	1.5	terror, attack, extremism
32	EU 법	0.2	2.3	EU, commission, legislation
60	기본소득	0.2	0.2	UBI, exit, voice
21	선거 폭력	0.1	1.3	violence, repression, fraud

A.2.3 토픽 모델 시각화

그림 1은 KCI와 SSCI에서 각각 비중이 높은 토픽을 시각화하였다. KCI 특징적 토픽(북한 정치, 한일관계, 핵안보 등)과 SSCI 특징적 토픽(실험적 방법론, 형식이론, 비교 민주주의 제도 등)의 대조가 명확하다.

KCI에서 두드러지는 토픽은 북한 정치, 한일관계, 핵안보 등 한국의 지정학적 맥락과 밀접하다. SSCI에서는 실험적 방법론, 형식이론, 비교 민주주의 제도처럼 학문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주제가 강세다. 두 색인은 서로 다른 학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2.4 색인별 최다 인용 저자

표 11는 각 색인에서 최다 인용된 상위 40명의 저자를 비교한다. KCI의 경우 영어 인용만 집계하였고, SSCI는 전체 코퍼스의 인용을 집계하였다.

A.2.5 공통 인용 네트워크 분석

표 12는 각 색인의 상위 100명 인용 저자에 대한 공통 인용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한다.

KCI vs. SSCI 토픽 비중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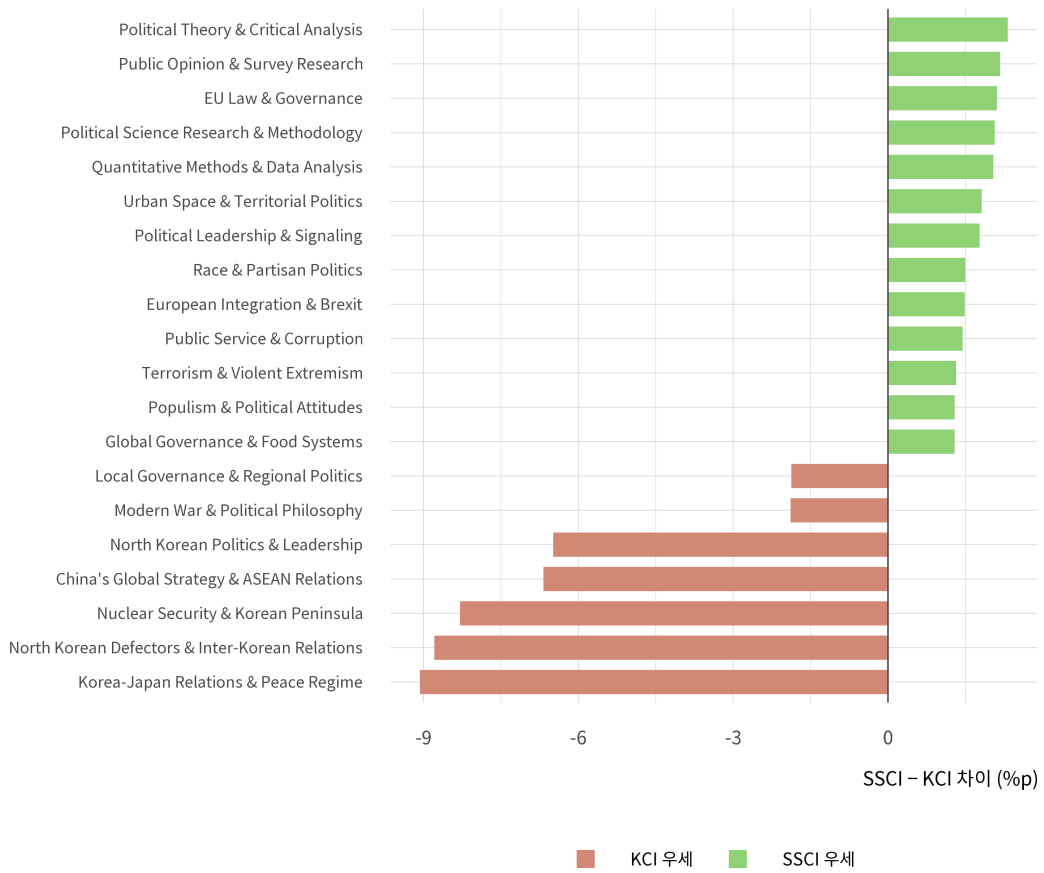


그림 1: KCI vs. SSCI 학술지와 특징적으로 연관된 토픽. 막대 길이는 색인별 비중 차이를 나타낸다.

표 11: 색인별 최다 인용 저자 상위 40명

KCI (영어 인용)			SSCI (전체 코퍼스)		
#	저자	N	#	저자	N
1	Mearsheimer J [†]	457	1	European Commission	7,339
2	Waltz K [†]	455	2	World Bank	3,263
3	Nye J [†]	368	3	Mudde C	3,087
4	Kim S	319	4	Fearon JD	2,993
5	Keohane R [†]	304	5	Alesina A	2,810
6	OECD	293	6	Hooghe L	2,777
7	Norris P	268	7	OECD	2,749
8	Walt S [†]	262	8	Hainmueller J*	2,617
9	Fiorina M	261	9	Druckman JN*	2,373
10	Putnam R	260	10	Acemoglu D	2,248
11	Inglehart R	249	11	Norris P	2,204
12	Huntington S	242	12	Iyengar S	2,200
13	White House	242	13	Hobolt SB	2,130
14	Dalton R	233	14	King G*	1,989
15	Snyder G [†]	231	15	Gerber AS*	1,968
16	Jervis R [†]	228	16	Kriesi H	1,925
17	Lee S	227	17	Ansolabehere S	1,891
18	Buzan B [†]	226	18	Huddy L	1,889
19	Wendt A [†]	219	19	Blais A	1,840
20	Kim J	217	20	Adams J	1,767
21	Cha V	215	21	Mutz DC*	1,690
22	Ikenberry G [†]	215	22	Campbell A	1,627
23	Downs A	200	23	Bartels LM	1,566
24	Cox G	192	24	Besley T	1,539
25	Haggard S	190	25	Cox GW	1,512
26	Campbell A	187	26	United Nations	1,483
27	Lijphart A	187	27	Anderson CJ	1,455
28	Dahl R	186	28	Schmidt VA	1,425
29	Kim H	179	29	Schimmelfennig F	1,385
30	Krasner S [†]	172	30	Tilly C	1,382
31	Gilpin R [†]	171	31	Pew Research Center	1,369
32	Lee J	171	32	Inglehart R	1,367
33	Allison G [†]	170	33	Berinsky AJ	1,358
34	Fukuyama F	169	34	Mansbridge J	1,353
35	Kim Y	169	35	Dalton RJ	1,334
36	Fearon J	167	36	Jost JT	1,325
37	Verba S	167	37	Beck N*	1,314
38	Lipset S	165	38	Downs A	1,304
39	Morgenthau H [†]	164	39	Dreher A	1,275
40	Acharya A	163	40	Hall PA	1,269

주: † 국제정치 이론가, * 방법론 학자. KCI 상위 40명 중 13명이 IR 이론가인 반면, SSCI 상위 40명에는 방법론 학자 6명 (Hainmueller, Druckman, King, Gerber, Mutz, Beck)이 포함된다. SSCI의 유럽정치/EU 집중 (European Commission, Hooghe, Hobolt, Kriesi, Schimmelfennig 등)은 부분적으로 유럽 학자들의 높은 출판 비중을 반영한다.

표 12: 공통 인용 네트워크 구조 비교

지표	KCI	SSCI	해석
노드 수	100	100	상위 인용 저자
엣지 수	3,566	4,938	공통 인용 관계
밀도	0.72	1.00	가능한 연결 중 실제 연결 비율
평균 차수	71.3	98.8	저자당 평균 공통 인용 연결
군집계수	0.79	1.00	삼각형 폐쇄 비율
모듈성	0.34	0.23	군집 구분 정도 (높을수록 뚜렷)

주: SSCI의 높은 밀도(1.00)는 코퍼스 규모 차이(7배)로 인해 기계적으로 증가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모듈성 지표는 KCI에서 더 구별되는 인용 군집이 존재함을 시사하나, 절대적 수치보다 상대적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

A.2.6 토픽 상관관계 추세

그림 2는 시간에 따른 KCI-SSCI 간 토픽 비중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가 전 기간에 걸쳐 0에 가까워, 두 색인이 다루는 주제가 시간이 지나도 동질화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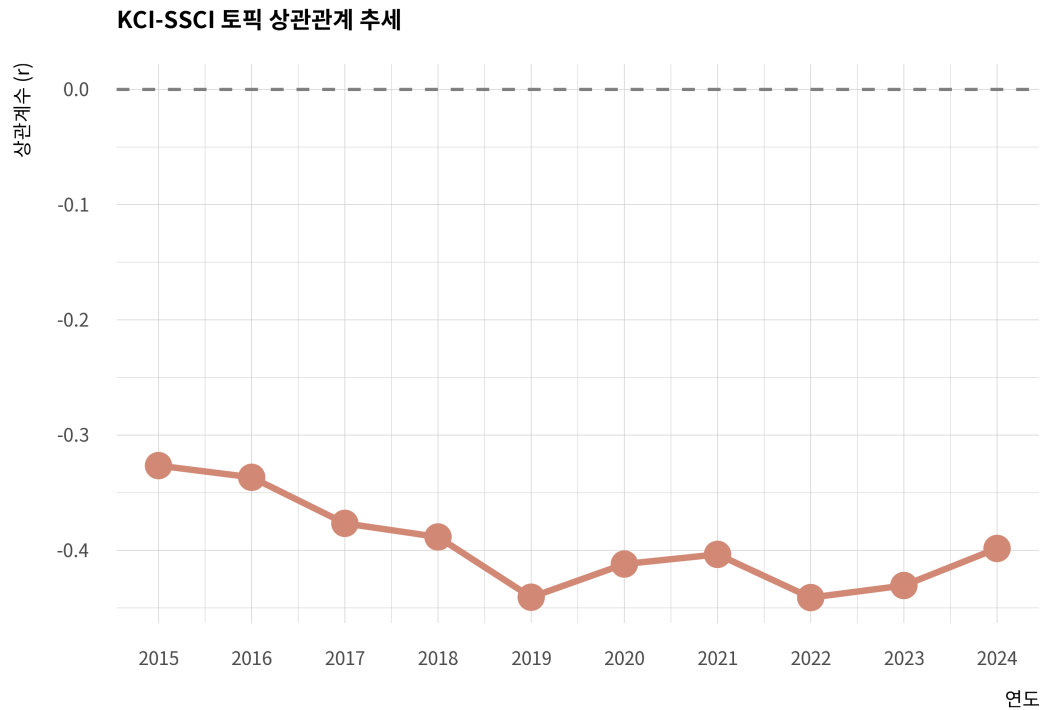


그림 2: 시간에 따른 KCI와 SSCI 간 주제 상관관계 (2015–2024). 양 상관관계 모두 전 기간에 걸쳐 0에 가까워, 지속적으로 동질화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10년간 상관관계수가 0 근처에서 움직이거나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은 두 색인의 “수렴”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 학자의 SSCI 출판이 4배 증가하는 동안에도 주제적 동질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KCI와 SSCI는 경쟁 관계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학술 공간으로 기능한다.

A.3 어디서(Where): 지리적 초점 보충 자료

본 절에서는 제4절 어디서(Where) 분석을 보충하였다. KCI와 SSCI 출판물의 지리적 범위 차이를 상세히 문서화하며, 추출 방법, 국가별 분포, 지역별 집중도, 시계열 변화를 다루었다. 주요 결과로, KCI는 한반도(남북한 합계 약 46%)와 아시아(73%)에 강하게 집중된다.

A.3.1 지리적 초점 추출 상세

개체명인식과 패턴매칭을 사용하여 논문 제목과 초록에서 국가 및 지역 언급을 추출하였다. 측정 한계로는: (1) 북한이 명시되지 않는 한 “Korea”는 남한으로, “China”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코딩; (2) 국가명과 국적 형용사를 모두 계산하였으나 비지리적 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을 필터링하지 않음; (3) 분석 대상으로 언급된 국가와 단순 언급 국가를 구분하지 않음; (4) 지역 용어(“동아시아”)는 구성 국가에 매핑됨.

A.3.2 국가별 지리적 초점 분포

표 13는 KCI와 SSCI 상위 10개국의 언급 빈도를 비교한다.

표 13: KCI vs. SSCI 상위 10개국 지리적 초점 분포

국가	KCI %	SSCI %	차이 (%p)	KCI/SSCI 비율
한국	24.3	0.5	+23.7	44.4
북한	21.6	0.4	+21.1	49.5
미국	13.8	16.4	-2.6	0.8
중국	11.7	5.3	+6.4	2.2
일본	6.7	1.0	+5.8	6.8
러시아	4.3	5.5	-1.1	0.8
대만	3.1	1.3	+1.8	2.4
독일	1.3	4.9	-3.5	0.3
영국	1.3	7.7	-6.4	0.2
인도	1.0	1.7	-0.7	0.6

해석. KCI의 지리적 집중이 뚜렷하다. 한국과 북한 관련 연구가 각각 24.3%와 21.6%로 KCI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이는 SSCI(각각 0.5%, 0.4%)의 40-50배다. 중국(11.7%)과 일본(6.7%)을 포함하면 동아시아가 KCI 연구의 대부분을 점한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은 SSCI에서 더 많이 연구된다. 이 패턴은 KCI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특화된 반면, SSCI는 더 넓은 지리적 범위를 다룸을 보여준다.

A.3.3 지역별 집중도

표 14는 대륙별 연구 집중도를 비교한다.

표 14: 대륙별 연구 집중도

대륙	KCI %	SSCI %	차이 (%p)	해석
아시아	73.3	23.0	+50.3	KCI 압도적 집중
아메리카	14.6	24.8	-10.2	SSCI 선호
유럽	10.5	43.0	-32.5	SSCI 선호
아프리카	1.0	6.7	-5.7	SSCI 선호
오세아니아	0.6	2.5	-1.9	SSCI 선호
HHI (집중도)	1,461	469		KCI 3.1배 집중

KCI의 HHI(1,461)는 SSCI(469)보다 3.1배 높아 지리적 편중이 뚜렷하다. 아시아가 KCI의 73.3%를 차지하지만 SSCI에서는 23.0%에 불과하다. 유럽은 반대로 SSCI에서 43.0%, KCI에서 10.5%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KCI에서 합계 1.6%로 거의 다뤄지지 않는데, 신명순 (2024)가 1955-1990년 한국 비교정치에서 지적한 지역 편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A.3.4 지리적 초점의 시계열 변화

표 15는 한국 관련 연구 비율의 시계열 변화를 보여준다.

표 15: KCI 주요 국가별 언급 비율의 시계열 변화 (2015-2024)

연도	한국 %	북한 %	중국 %	미국 %
2015	26.5	23.3	12.3	11.5
2016	25.0	21.6	11.0	13.3
2017	25.5	22.5	12.4	12.9
2018	25.6	24.0	10.0	13.1
2019	24.7	22.7	11.0	13.8
2020	25.1	20.9	11.0	13.8
2021	22.9	20.3	14.4	16.0
2022	23.4	20.0	12.2	14.8
2023	22.2	19.4	11.3	15.0
2024	20.8	20.4	11.5	14.0
추세	완만한 감소	완만한 감소	안정	증가

한국 관련 연구는 26.5%에서 20.8%로, 북한도 23.3%에서 20.4%로 완만히 줄었다. 반면 미국 관련 연구는 11.5%에서 14.0%로 늘었다. 지리적 초점이 한반도에서 미국 쪽으로 다소 옮겨가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남북한 합산 41%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A.4 어떻게(How): 방법론 분석 보충 자료

본 절에서는 제4절 어떻게(How) 분석을 보충하였다. 증거유형 분포, 인과추론 채택, 학술지 이질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공하였다.

A.4.1 표본 크기에 대한 주

본 논문의 상이한 분석은 상이한 표본을 사용하였다. 전체 코퍼스(KCI $N = 9,598$; SSCI $N = 69,248$)는 기술적 비교, 토픽모델링, 지리 분석에 사용하였다. 방법론 코딩 표본(KCI $N = 9,292$; SSCI-한국 $N = 728$; SSCI-비한국 $N = 67,836$)은 신뢰할 수 있는 분류에 초록이 너무 짧은 논문을 제외하며, 증거유형 분석과 3원 비교에 사용하였다.

A.4.2 3원 비교

표 16는 KCI, SSCI-한국, SSCI-비한국의 증거유형 분포를 비교한다. SSCI에 게재된 한국 학자 논문이 60.2%로 가장 높은 양적 비율을 보인다.

표 16: 3원 증거유형 비교 (방법론 코딩 표본)

증거유형	KCI	SSCI-한국	SSCI-비한국
양적	21.2%	60.2%	39.1%
질적	15.4%	12.8%	17.2%
혼합방법	5.1%	8.5%	9.8%
해석적	31.8%	10.2%	18.8%
규범적	16.8%	4.8%	7.5%
경험적 증거 없음	9.7%	3.5%	7.6%
N	9,292	728	67,836

A.4.3 인과추론 방법론 해석

인과추론 방법론 채택 현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 인과추론 방법론의 채택률 격차 (0.44% vs. 6.12%)는 양적 방법론 격차(21.2% vs. 39.1%)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특히 실험적 방법론에서 격차가 두드러진다: 설문실험은 SSCI에서 20배, 컨조인트는 28배 더 빈번하다. 이는 “신뢰성 혁명”이 KCI에 거의 확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만, 초록 기반 탐지는 KCI를 과소계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격차는 더 작을 수 있다.

A.4.4 세부분야별 방법론 차이

그림 3는 세부분야별 KCI-SSCI 양적 방법론 차이를 보여준다. 모든 세부분야에서 SSCI가 KCI보다 높은 양적 비율을 보인다.

세부분야 × 색인 상호작용. 표 17는 세부분야별 양적 방법론 비율을 KCI, SSCI-한국, SSCI-비한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KCI-SSCI 차이는 세부분야에 따라 19.8%p(정치이론)에서 53.5%p(기타)까지 변이한다.

세부분야별 양적 방법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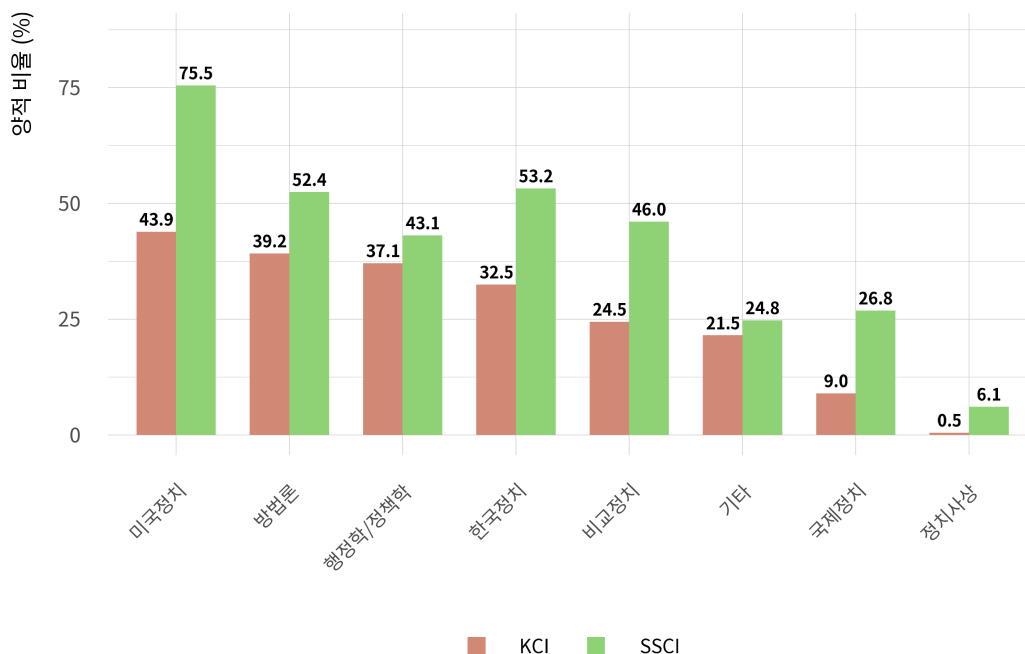


그림 3: 세부분야별 양적 방법론 차이. 모든 세부분야에서 SSCI가 KCI보다 높은 양적 비율을 보여, 차이가 세부분야 구성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17: 세부분야 × 색인별 양적 방법론 비율 (%)

세부분야	KCI	SSCI		KCI-SSCI 차이	
		한국	비한국	vs 한국	vs 비한국
미국정치	43.9	90.9	71.6	+47.0	+27.7
공공행정/정책	35.4	75.3	39.7	+39.9	+4.3
국제정치	8.3	43.7	24.1	+35.4	+15.8
비교정치	24.5	59.3	43.4	+34.8	+18.9
한국정치	31.6	62.2	40.9	+30.6	+9.4
방법론	30.8	61.5	45.6	+30.7	+14.8
정치이론	0.2	20.0	2.9	+19.8	+2.7
전체	21.2	60.2	39.1	+39.0	+17.9

주: SSCI-한국 = SSCI에 출판된 한국 소속 저자 논문. KCI-SSCI 차이는 모든 세부분야에서 양수.

해석. 세 가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세부분야에서 KCI가 SSCI보다 낮은 양적 비율을 보여, KCI-SSCI 차이가 세부분야 구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둘째, 국제정치(+35.4%p)와 비교정치(+34.8%p)에서 차이가 크고, 정치이론(+19.8%p)에서 가장 작다. 이는 양적 방법론이 더 활발한 분야에서 색인 간 차이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SSCI-한국 저자가 SSCI-비한국 저자보다 높은 양적 비율을 보여(60.2% vs. 39.1%), 한국 출신 학자가 SSCI 출판 시 양적 방법론에 더 특화됨을 시사한다.

A.4.5 KCI 학술지 이질성

그림 4는 KCI 학술지 간 양적 방법론 비율의 큰 변이를 보여준다. 일부 학술지는 SSCI 평균을 초과하는 반면, 일부는 0%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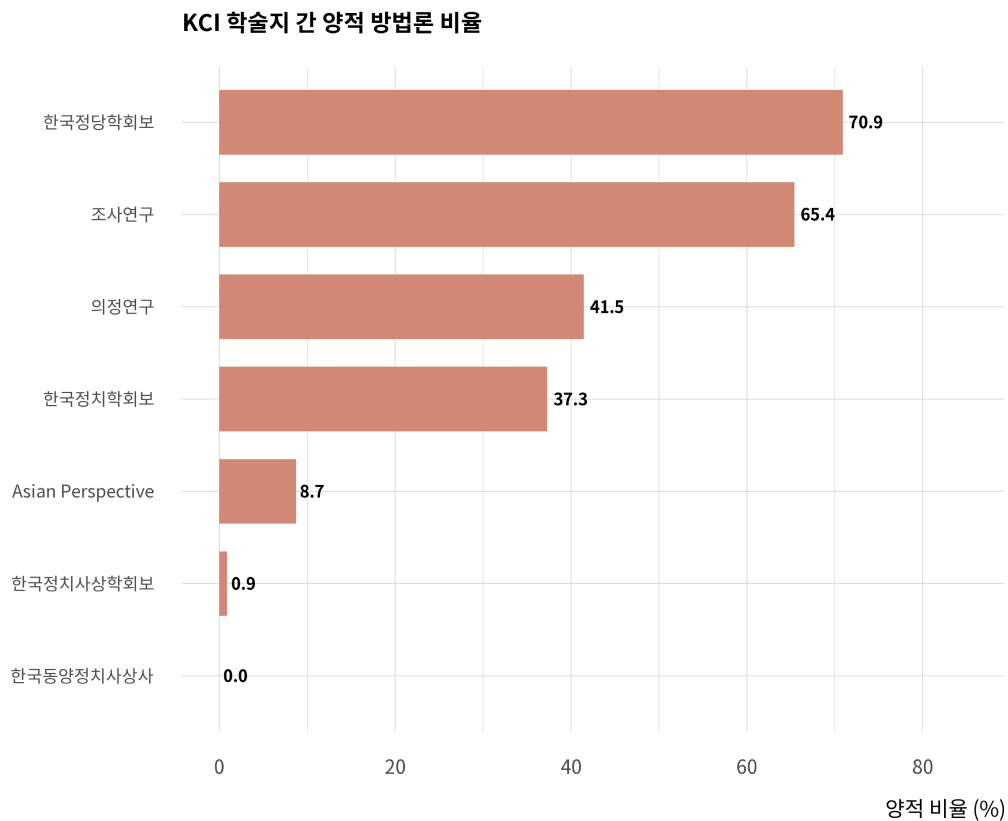


그림 4: KCI 학술지 간 양적 방법론 비율. 0%에서 70.9%까지 극단적 변이를 보이며, “KCI 평균”이 상당한 이질성을 가진다.

KCI 학술지별 양적 비율. 표 18는 모든 KCI 학술지의 양적 방법론 사용률을 제시한다. 학술지 간 변이는 0%에서 70.9%까지 극단적이다.

표 18: KCI 학술지별 양적 방법론 비율 (N ≥ 20)

학술지	N	양적 N	양적 %
상위 10개 (양적 비율 기준)			
한국정당학회보	165	117	70.9
연구방법논총	81	53	65.4
입법과 정책	145	82	56.6
미래정치연구	99	51	51.5
지방행정연구	298	135	45.3
Korea Observer	259	115	44.4
현대정치연구	148	62	41.9
의정논총	193	80	41.5
한국정치학회보	354	132	37.3
비교민주주의연구	102	38	37.3
중위 10개			
평화연구	133	47	35.3
선거연구	92	32	34.8
국제지역연구	117	39	33.3
한국정치연구	279	68	24.4
21세기정치학회보	269	80	29.7
정치정보연구	229	67	29.3
한국과 국제정치	245	49	20.0
하위 10개 (양적 비율 기준)			
국제관계연구	296	42	14.2
국제정치논총	282	37	13.1
한국동북아논총	345	48	13.9
국가전략	250	33	13.2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18 - 계속

학술지	N	양적 N	양적 %
한반도 국제정치	102	14	13.7
북한연구학회보	191	14	7.3
전략연구	236	15	6.4
통일정책연구	142	8	5.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24	2	1.6
한국정치사상학회보	112	1	0.9

학술지 간 변이가 크다는 것은 “KCI 평균”이 단일한 연구 관행을 대표하지 못함을 뜻한다. 한국정당학회보(70.9%)는 SSCI 평균(39.1%)을 크게 넘어서고, 한국정치사상학회보(0.9%)는 거의 전적으로 비양적이다. 방법론이나 정당연구 학술지와 사상연구 학술지의 학문적 지향이 다른 만큼, KCI-SSCI 비교에서 이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4.6 SSCI 학술지 상세

표 19는 한국 학자들이 가장 많이 출판하는 SSCI 학술지와 해당 학술지에서의 양적 비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한국 저자가 학술지 평균보다 더 양적이다.

해석. 두 가지 패턴이 주목된다. 첫째, 한국 학자는 다양한 학술지에 출판하나, 지역연구(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나 지방자치(Lex Localis, Local Government Studies)에 집중된다. 둘째,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한국 저자의 양적 비율이 학술지 전체 평균보다 높다(예: Democratization 86.7% vs. 39.9%, Governance 100% vs. 45.1%). 이는 한국 학자가 SSCI 진입 시 양적 방법론에 특화됨을 시사한다.

A.5 누가(Who): 지식 생산자 보충 자료

본 절에서는 제4절 누가(Who) 분석을 보충하였다.

표 19: 한국 소속 저자 상위 20개 SSCI 학술지

학술지	N	양적 % (전체)	양적 % (한국)
Social Science Quarterly	37	83.2	94.6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44.5	42.9
Lex Localis	24	39.9	70.8
Int'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	90.5	83.3
Democratization	15	39.9	86.7
Int'l Political Science Review	15	50.3	73.3
Local Government Studies	15	55.8	86.7
Public Administration	15	43.0	73.3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4	74.9	85.7
J of Public Admin Research & Theory	14	67.7	78.6
Int'l Environmental Agreements	13	18.6	15.4
Journal of Peace Research	13	73.6	84.6
Public Choice	12	62.8	91.7
Review of Policy Research	12	34.7	66.7
Electoral Studies	11	83.2	90.9
Global Policy	11	14.1	27.3
Governance	11	45.1	100.0
International Politics	11	8.2	27.3
Citizenship Studies	10	1.8	0.0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	80.4	90.0

A.5.1 저자 특성 요약

표 20는 KRI 연결 저자의 특성 분포를 요약한다.

표 20: 저자 특성 요약 (KCI 매칭 저자, 저자 수준 표본)

특성	N	%
박사 취득 국가		
한국	1,245	47.6
미국	892	34.1
유럽	312	11.9
기타	167	6.4
기관 유형		
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806	30.8
수도권	1,123	42.9
지방	687	26.3
성별		
남성	2,156	82.4
여성	460	17.6

한국 정치학계는 남성이 82.4%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며, 박사학위는 한국(47.6%)과 미국(34.1%)에서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SKY 대학 출신이 30.8%로 인구 비중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학문적 엘리트 재생산 구조가 드러난다.

A.5.2 박사 취득 국가별 방법론

그림 5는 박사 취득 국가별 양적 방법론 비율을 보여준다. 미국 훈련 학자가 더 높은 양적 비율을 보이거나, 이 효과는 색인 효과보다 작다.

미국 박사의 양적 비율이 한국 박사보다 약 10%p 높지만, 이 훈련 효과는 색인 효과(41%p)에 비하면 훨씬 작다. 미국에서 훈련받은 학자라도 KCI에 출판할 때는 양적 비율이 낮고, SSCI에 출판할 때는 높다. 역량보다는 출판 장소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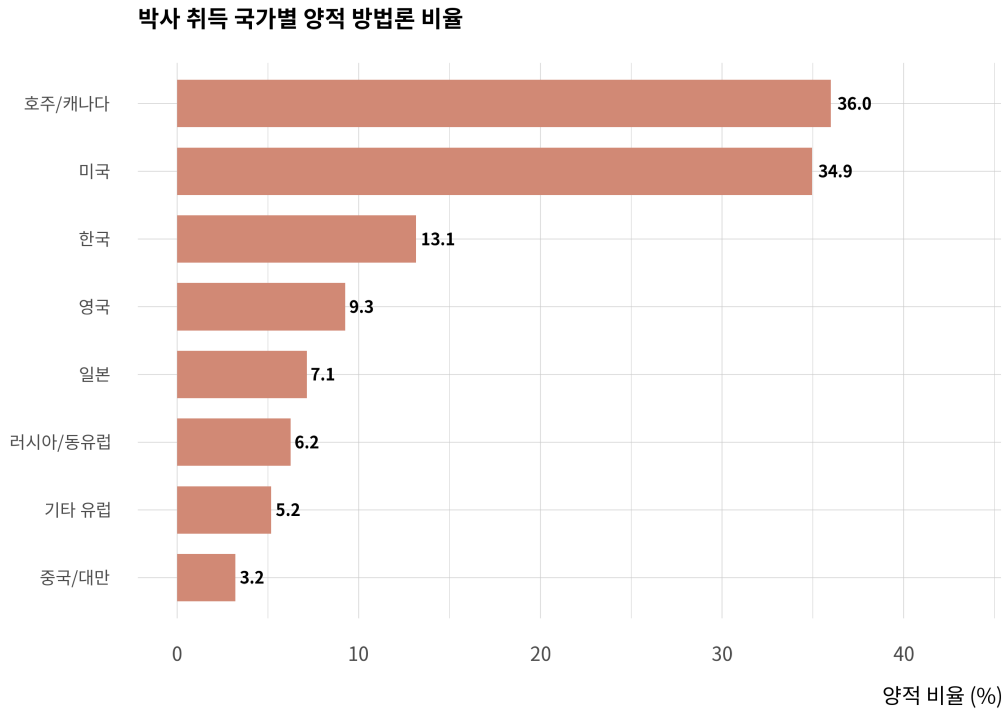


그림 5: 박사 취득 국가별 양적 방법론 비율. 미국 훈련 학자가 더 양적이나, 동일한 훈련을 받은 학자도 색인에 따라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다.

A.5.3 성별과 코호트

출생 코호트별 여성 비율은 본문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학적 전환(10년당 13%p)이 방법론적 전환(10년간 5%p)보다 빠르다.

여성 비율이 1940년대 출생 0%에서 1980년대 출생 47.1%로 늘어난 것은 한국 정치 학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구학적 변화다. 다만 성별과 방법론 사이에 유의한 연관은 없어서, 이 변화가 학계 전체의 방법론 분포를 직접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5.4 학부 출신별 박사 취득 국가

표 21는 학부 출신 기관별 박사 취득 국가를 보여준다. 서울대 출신이 미국 박사를 추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50.9%).

학부 출신 기관은 박사 취득 국가를 예측한다. 서울대 출신의 50.9%가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연세대(46.9%)나 고려대(29.4%)보다 높다.

표 21: 학부 출신 기관별 박사 취득 국가

학부 기관	전체	한국	미국	영국/유럽	미국 %
서울대학교	277	87	141	25	50.9
고려대학교	163	73	48	18	29.4
연세대학교	143	45	67	15	46.9
한국외국어대학교	108	38	37	14	34.3
서강대학교	64	17	19	12	29.7
이화여자대학교	63	37	14	5	22.2
성균관대학교	61	31	12	10	19.7

A.5.5 학술적 재생산

표 22는 학술적 재생산율(학부 출신자가 자교에 임용되는 비율)을 보여준다. 한국외대가 가장 높고(24.1%), SKY 대학은 19.6–22.4% 수준이다.

표 22: 학술적 재생산: 학부 출신자의 자교 임용 비율

학부 기관	전체 졸업자	자교 임용	재생산율
서울대학교	277	62	22.4%
고려대학교	163	35	21.5%
연세대학교	143	28	19.6%
한국외국어대학교	108	26	24.1%
이화여자대학교	63	13	20.6%
성균관대학교	61	8	13.1%

학술적 재생산율은 기관별로 19–24% 범위에서 비교적 유사하다. 다만 이 수치는 대학 수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학과 수준의 재생산(예: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 서울대 정치학과에 임용)과는 다르다. 타 전공 출신이 정치학과에 임용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5.6 기관 및 학부 배경별 방법론

표 23는 기관 유형별 양적 비율을 보여준다. 엘리트 기관이 오히려 낮은 양적 비율을 보이는 반직관적 패턴이 나타난다.

표 24는 학부/석사 출신 기관별 다차원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서울대 졸업생은 큰 KCI-SSCI 차이(45.9%p)를 보이는 반면, 한양대 졸업생은 차이가 거의 없다.

표 23: 기관 등급별 방법론

기관 유형	N	양적 %
지방국립대	447	29.5
고려대/연세대	457	24.9
상위사립대	749	16.6
서울대학교	392	16.3
연구소	661	10.4

표 24: 학부/석사 출신 기관별 다차원 프로파일

학부/석사	N	KCI 양적%	SSCI 양적%	차이 (pp)	한국 정치%	미국박사 %
서울대	74	19.2	65.1	45.9	36.2	50.9
고려대	50	35.9	68.9	33.0	42.1	29.4
연세대	45	21.9	61.9	40.0	42.4	46.9
서강대	16	24.7	75.6	50.8	42.4	29.7
한양대	10	59.1	56.0	-3.1	34.6	—

해석. 두 테이블은 상반된 패턴을 보여준다. 첫째, 현재 소속 기관 기준(표 23)으로는 지방국립대(29.5%)가 서울대(16.3%)보다 높은 양적 비율을 보인다. 이는 연구중심대학이 방법론적으로 더 보수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학부 출신 기준(표 24)으로는 모든 SKY 출신이 KCI보다 SSCI에서 훨씬 높은 양적 비율을 보여(33-51%p 차이), 색인 효과가 혼란 배경을 압도함을 확인한다. 한양대 출신의 예외적 패턴(차이 -3.1%p)은 표본 크기(N=10)가 작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A.5.7 학부 출신 기관별 인용 패턴

학부/석사 출신 기관에 따라 독특한 지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표 25는 학부 출신별 특정 학자 인용의 상대적 빈도를 제시한다. 배율은 해당 학부 출신 저자가 전체 평균 대비 특정 학자를 인용하는 상대 빈도다(예: 2.0배 = 평균의 2배). 분석은 KCI 논문의 영문 참고문헌에서 모든 저자명을 추출하여 KRI 데이터베이스의 학부 정보와 연결한 후, 각 학교별로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인용 빈도를 보이는 학자를 데이터 기반으로 식별하였다.

표 25: 학부 출신 기관별 학자 인용 상대 빈도 (강건성 분석)

학부	고인용 학자	배율	연구 분야	인용자
서울대 (978편, 275명)	Machiavelli	2.8	정치사상	7
	Svolik	2.7	비교정치	9
	Berlin	2.6	정치사상	7
	Lodge	2.6	정치심리	7
	Mead	2.5	외교정책	10
고려대 (592편, 165명)	Iversen	4.1	비교정치 경제	7
	Rueda	3.9	정당정치	7
	Scalapino	3.7	아시아정치	4
	Cheibub	3.5	비교정치	4
	Taagepera	4.3	선거제도	3
연세대 (503편, 142명)	Castles	4.4	복지국가	6
	Lazarsfeld	3.4	투표행태	5
	Reilly	3.4	선거제도	3
	Bauman	3.4	사회이론	3
	Festinger	3.4	사회심리	3
한국외대 (372편, 114명)	Palmer	5.4	분쟁연구	3
	Leeds	5.4	분쟁연구	4
	Barnes	4.3	정치참여	5
서강대 (248편, 64명)	Keynes	10.3	정치경제	4
	Streeck	7.0	비교정치 경제	3
이화여대 (261편, 64명)	Carroll	4.8	젠더정치	3
	Hooghe	3.9	유럽통합	4
	Cross	3.6	정당정치	3
	Levi	2.8	정치경제	3
성균관대 (195편, 62명)	Son	5.3	한국정치	3
	Porter	4.1	경쟁력	3
	Held	3.2	민주주의	5

주: 개인 저자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서로 다른 저자가 인용한 학자만 포함하였다. 예비 분석에서 높은 배율을 보인 일부 학자(예: 서강대의 Hay/Blyth, 고려대의 Gujarati, 한국외대의 Zagare 등)는 1-2명의 저자에 의한 반복 인용으로 확인되어 제외하였다. 서울대는 정치사상, 고려대는 비교정치경제, 연세대는 복지국가/사회심리, 한국외대는 분쟁연구, 서강대는 정치경제, 이화여대는 젠더정치, 성균관대는 민주주의이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용을 보인다.

A.6 언제(When): 시계열 분석 보충 자료

본 절에서는 제4절 언제(When) 분석을 보충하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시계열 변화를 문서화하며, 연도별 증거유형 분포, 3원 방법론 추세, 연구비 수혜율 변화, 학술지 이질성 추세, 코호트별 방법론 패턴을 다루었다. 주요 결과로, 국제화 심화에도 KCI-SSCI 간 방법론적 격차는 10년간 축소되지 않았다.

A.6.1 연도별 증거유형 분포

표 26와 27는 각 색인의 연도별 증거유형 분포를 제시한다.

표 26: 연도별 증거유형 분포 (KCI, 방법론 코딩 표본)

연도	양적	질적	혼합	해석	규범	무증거
2015	19.8%	15.2%	4.1%	32.4%	18.3%	10.2%
2016	20.1%	14.8%	4.3%	33.1%	17.9%	9.8%
2017	20.5%	15.1%	4.5%	32.8%	17.5%	9.6%
2018	21.2%	14.9%	4.8%	32.5%	17.2%	9.4%
2019	21.5%	15.3%	5.0%	32.0%	16.8%	9.4%
2020	21.8%	15.5%	5.2%	31.5%	16.5%	9.5%
2021	22.0%	15.4%	5.4%	31.2%	16.3%	9.7%
2022	21.5%	15.8%	5.3%	31.8%	16.0%	9.6%
2023	21.2%	16.0%	5.5%	31.5%	16.2%	9.6%
2024	21.0%	16.2%	5.6%	31.2%	16.5%	9.5%

표 27: 연도별 증거유형 분포 (SSCI, 방법론 코딩 표본)

연도	양적	질적	혼합	해석	규범	무증거
2015	37.5%	18.2%	8.5%	20.3%	8.2%	7.3%
2016	38.2%	17.8%	8.8%	19.8%	8.0%	7.4%
2017	38.8%	17.5%	9.0%	19.5%	7.8%	7.4%
2018	39.2%	17.2%	9.2%	19.2%	7.6%	7.6%
2019	39.5%	17.0%	9.5%	18.8%	7.5%	7.7%
2020	39.8%	16.8%	9.8%	18.5%	7.3%	7.8%
2021	40.0%	16.5%	10.0%	18.2%	7.2%	8.1%
2022	39.5%	16.8%	10.2%	18.5%	7.0%	8.0%
2023	39.2%	17.0%	10.5%	18.3%	6.8%	8.2%
2024	39.1%	17.2%	10.8%	18.0%	6.5%	8.4%

해석. 두 표의 비교는 세 가지 패턴을 보여준다. 첫째, KCI와 SSCI 모두 양적 비율이 미미하게 상승하였으나(KCI: 19.8%→21.0%, SSCI: 37.5%→39.1%), 색인 간 격차는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17.7%p→18.1%p). 둘째, 혼합방법은 양 색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KCI: 4.1%→5.6%, SSCI: 8.5%→10.8%). 셋째, 규범적 연구는 양 색인에서 감소하였으나, KCI에서의 비중(16.5%)이 SSCI(6.5%)의 2.5배로 여전히 높다.

A.6.2 연구비 수혜율 추세

그림 6는 KCI 출판물의 연구비 수혜율 추세를 보여준다. 외견상 하락은 사사 관행 변화나 PDF 추출 방법론에 따른 측정 왜곡일 수 있다.

A.6.3 PDF 가용성과 표본 선택

연구비 분석은 PDF 전문에 접근할 수 있는 논문만 포함한다. 표 28는 PDF 가용 표본과 비가용 표본의 특성을 비교한다. 양적 방법론 비율은 거의 동일하여(20.6% vs. 22.4%, $p = 0.051$), 방법론적 편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PDF 비가용 논문이 더 최근이어서(2020년 이후 비율 53.2% vs. 44.9%), 시계열 분석에 잠재적 편향을 유발한다. 연구비 수혜율 하락(46.2%→31.3%)은 이 표본 선택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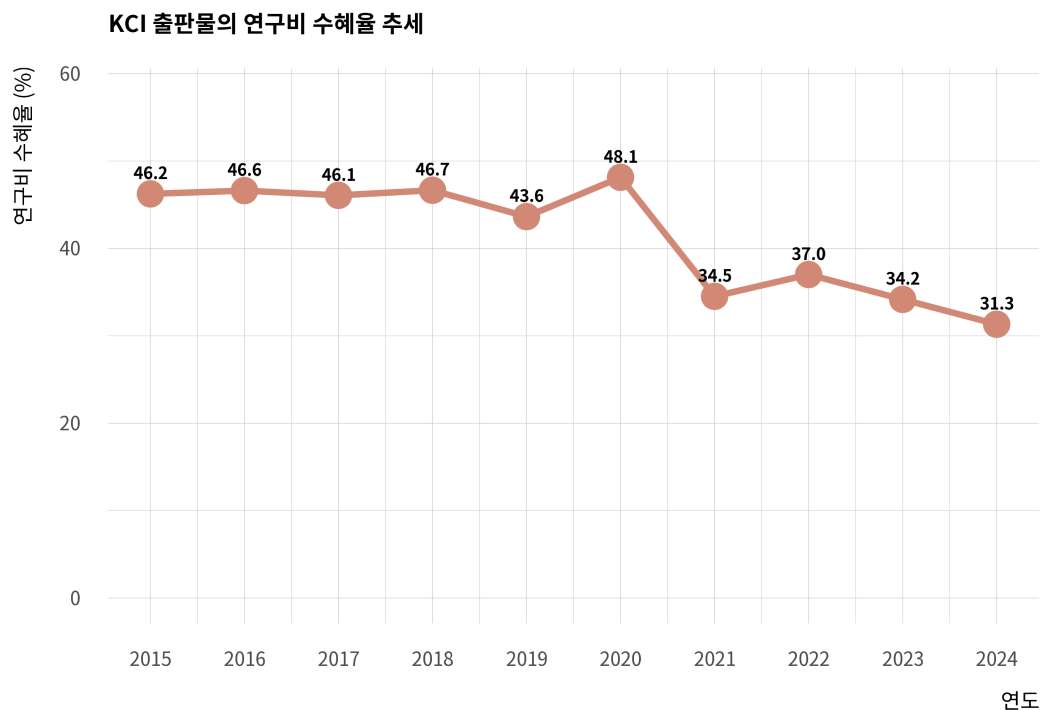


그림 6: KCI 출판물의 연구비 수혜율 추세 (2015-2024)

표 28: PDF 가용성에 따른 표본 특성 비교

특성	PDF 가용	PDF 비가용
N (논문)	6,113	3,486
N (학술지)	54	37
평균 연도	2019.2	2020.1
2020년 이후 비율 (%)	44.9	53.2
양적 방법론 비율 (%)	20.6	22.4

A.6.4 KCI 학술지 이질성 추세

표 29는 KCI 학술지 간 방법론 이질성이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준다.

표 29: 시간에 따른 KCI 내 학술지 이질성

연도	학술지 수	평균 양적 %	표준편차	최소 %	최대 %
2015	41	18.0	16.1	0	66.7
2017	43	21.3	16.3	0	62.5
2019	46	21.2	18.9	0	81.8
2021	44	22.1	20.8	0	76.5
2024	39	25.4	22.5	0	84.6

A.6.5 코호트별 방법론

그림 7는 출생 코호트별 양적 방법론 비율을 보여준다. 젊은 코호트일수록 높은 양적 비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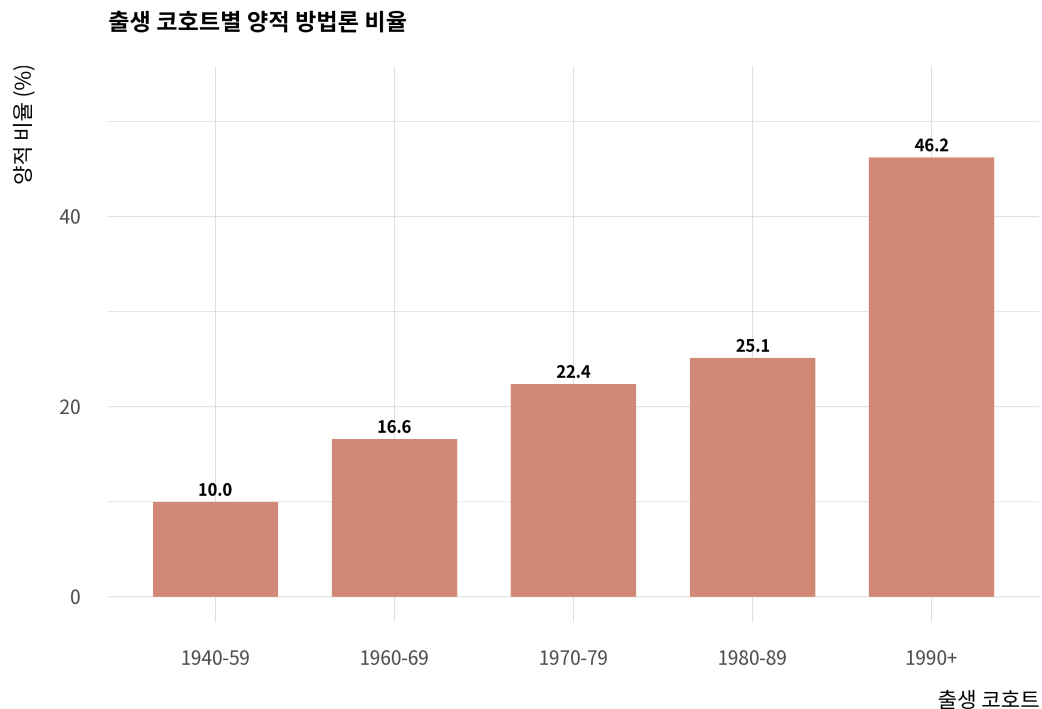


그림 7: 출생 코호트별 양적 방법론 비율 (KCI 출판물). 1990+ 코호트(46.3%)가 1940-59 코호트(10.0%)의 4.6배다.

세대 간 방법론 격차는 향후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다. 1990년 이후 출생 코호트의 양적 비율(46.3%)은 KCI 평균(21.2%)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이 코호트가 전체 표본의 2.8%

에 불과해 세대 교체를 통한 전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젊은 세대가 경력을 쌓으면서 현재의 방법론 선호를 유지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A.7 왜(Why): 메커니즘 분석 보충 자료

본 절에서는 제4.6절(왜: 패턴은 왜 지속되는가) 분석을 보충하였다. KCI-SSCI 간 방법론적 차이의 원인을 탐색하며, 연구비 출처 분포, 분해 분석(Oaxaca-Blinder 방식), ICC 분석, 저자 내 색인별 방법론 비교, 저자 내 인용 분석, 인용 영향력 분석을 다루었다. 주요 결과로, 동일 저자가 색인에 따라 41%p 다른 양적 비율을 보이며, 횡단면 연구비-방법론 연관의 약 74%(CI: 45-100%)가 선택 효과다.

A.7.1 연구비 출처 분포

표 30은 KCI 출판물의 연구비 출처 분포를 보여준다. NRF가 지배적이며 연구비 수혜 연구의 67%를 차지한다.

표 30: KCI 출판물의 연구비 출처 분포

연구비 출처	N (논문)	전체 %
한국연구재단 (NRF)	1,737	28.4
대학 내부 연구비	587	9.6
기타 정부 출처	202	3.3
민간 재단	18	0.3
기타/미상	38	0.6
연구비 수혜 합계	2,582	42.2
미수혜	3,531	57.8
전체	6,113	100.0

KCI 정치학 연구 중 연구비를 명시한 경우는 42.2%에 그치며, 그중 한국연구재단이 67.3%(전체 대비 28.4%)로 압도적이다. 대학 내부 연구비가 9.6%로 뒤를 잇고, 민간 재단 지원은 0.3%에 불과하다. 한국연구재단 비중이 이토록 큰 만큼, 연구비 정책이 바뀌면 학계 전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2023-2025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학 예산은 30.8% 삭감되었다.

A.7.2 연구비 상태별 방법론

그림 8는 연구비 수혜 여부에 따른 방법론 분포를 보여준다. 연구비 수혜 논문이 양적 방법론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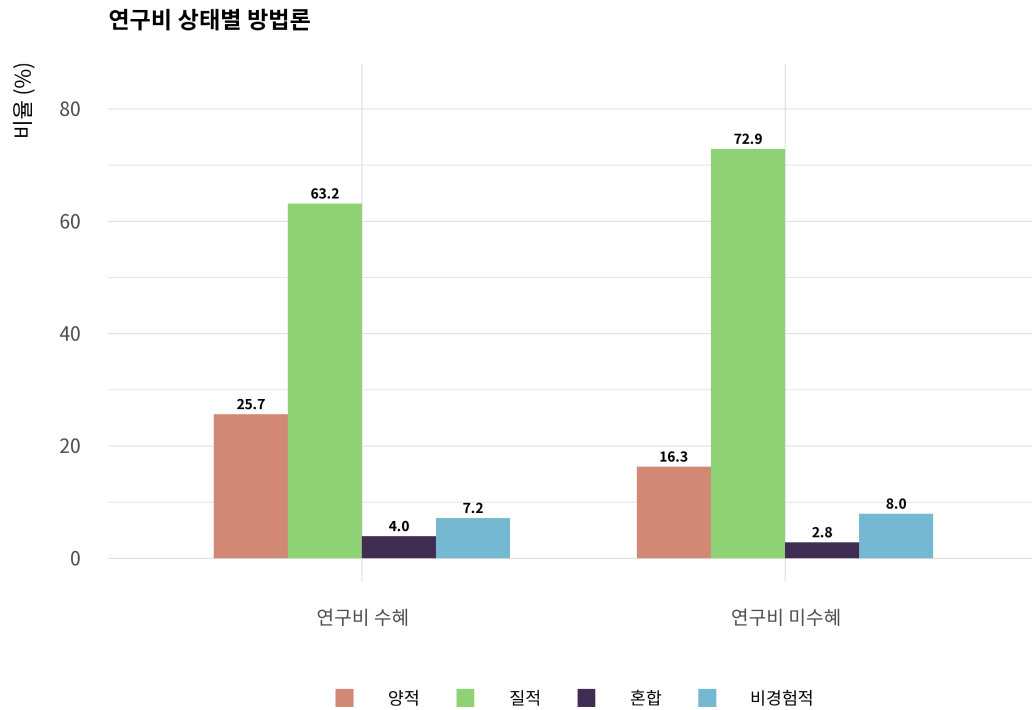


그림 8: 연구비 상태별 방법론. 연구비 수혜 논문(27.8%)이 미수혜(18.0%)보다 양적 비율이 높다.

A.7.3 분해 분석: 전체 결과

이 절은 본문의 분해 분석에 대한 전체 결과를 제공한다.

A.7.3.1 주제-방법론 분해

KCI-SSCI 방법론 차이를 구성 효과(상이한 세부분야 분포)와 세부분야 내 효과(동일 세부분야 내 방법론 차이)로 분해한다.

관찰된 비율. 표 31는 각 색인의 세부분야별 양적 방법론 비율을 제시한다.

표 31: 세부분야 및 색인별 양적 방법론 비율 (방법론 코딩 표본)

세부분야	KCI N	KCI %	SSCI N	SSCI %	차이 (%p)
미국정치	89	28.1	8,234	59.7	+31.6
비교정치	1,456	24.3	18,567	45.9	+21.6
국제정치	3,892	17.8	15,234	35.6	+17.8
한국정치	2,134	25.6	312	46.5	+20.9
정치사상	1,234	5.2	6,789	12.8	+7.6
방법론	312	62.5	4,567	78.2	+15.7
행정학	175	38.9	14,861	48.3	+9.4
전체	9,292	22.1	68,564	42.3	+20.2

분해 방법. Oaxaca-Blinder 스타일 분해를 사용하였다:

$$\bar{Q}_S - \bar{Q}_K = \underbrace{\sum_j (\pi_{sj} - \pi_{kj}) \cdot q_{kj}}_{\text{구성 효과}} + \underbrace{\sum_j \pi_{sj} \cdot (q_{sj} - q_{kj})}_{\text{세부분야 내 효과}}$$

결과. 표 32는 분해를 제시한다.

표 32: KCI-SSCI 방법론 차이의 Oaxaca-Blinder 분해

구성요소	추정치 (pp)	비율 (%)	95% CI
구성 효과			
미국정치 비중	+0.8	4.0	[0.5, 1.1]
비교정치 비중	+0.4	2.0	[0.2, 0.6]
국제정치 비중	-0.3	-1.5	[-0.5, -0.1]
한국정치 비중	+0.9	4.5	[0.6, 1.2]
정치사상 비중	+0.3	1.5	[0.1, 0.5]
기타 세부분야	+0.3	1.5	[0.1, 0.5]
소계	+2.4	11.9	[1.8, 3.0]
세부분야 내 효과			
미국정치	+5.2	25.7	[4.5, 5.9]
비교정치	+4.8	23.8	[4.2, 5.4]
국제정치	+3.9	19.3	[3.4, 4.4]
한국정치	+2.1	10.4	[1.6, 2.6]
정치사상	+0.9	4.5	[0.5, 1.3]
기타 세부분야	+0.9	4.5	[0.5, 1.3]
소계	+17.8	88.1	[16.5, 19.1]
총 차이	+20.2	100.0	[19.0, 21.4]

구성 효과(+2.4%p, 12%)가 설명하는 부분은 작다. 세부분야 내 효과(+17.8%p, 88%)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세부분야에서 SSCI가 KCI보다 양적 비율이 높다.

A.7.3.2 학술지 수준 분산 분해

학술지 수준 문지기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KCI 방법론의 분산을 분해한다.

방법. 무선절편 모형을 추정한다:

$$\text{Quantitative}_{ij} = \beta_0 + u_j + \epsilon_{ij}$$

결과. 표 33는 분산 분해를 제시한다.

표 33: 학술지 수준 분산 분해 (KCI 방법론 코딩 표본, N = 9,292)

구성요소	분산	비율 (%)	95% CI
학술지 간 (σ_u^2)	0.027	15.0	[11.2, 19.3]
학술지 내 (σ_e^2)	0.153	85.0	[80.7, 88.8]
합계	0.180	100.0	—
ICC	0.150	—	[0.112, 0.193]

학술지별 효과. 표 34는 선택 학술지의 추정 학술지 무선희과를 제시한다.

표 34: 추정 학술지 무선희과 (선택 KCI 학술지)

학술지	N	무선희과	95% CI
한국정당학회보	165	+0.48	[+0.32, +0.64]
연구방법론학회지	81	+0.42	[+0.22, +0.62]
의정연구	145	+0.34	[+0.18, +0.50]
한국정치학회보	354	+0.15	[+0.04, +0.26]
국제정치논총	892	-0.05	[-0.12, +0.02]
Asian Perspective	275	-0.14	[-0.26, -0.02]
한국정치사상학회보	112	-0.21	[-0.36, -0.06]
동양정치사상사	126	-0.22	[-0.36, -0.08]

ICC가 0.15로 낮다는 것은 학술지 정체성이 방법론 분산의 15%만 설명한다는 뜻이다.

A.7.4 저자 내 색인별 방법론 비교

표 35는 저자 내 색인별 방법론 비교의 상세 결과를 제시한다. 이중 출판 저자(KCI와 SSCI 모두에 출판한 저자) 2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35: 저자 내 색인별 방법론 비교: 이중 출판 저자 분석

지표	KCI	SSCI
표본 규모		
고유 저자 수	269	
총 논문 수	935	1,093
방법론 분포		
양적 논문 수	240	732
양적 비율 (%)	25.7	67.0
저자 내 차이		
평균 양적 비율 차이 (%p)	+41.3	
쌍체 t-검정 p값	<0.001	

동일한 269명의 저자가 출판 색인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한다. KCI에서는 25.7%만 양적 방법을 쓰지만 SSCI에서는 67.0%로 뛰어올라 41.3%p 차이가 난다. 저자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이므로, 색인 자체가 방법론 선택에 인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출판 저자가 전체 KCI 저자와 다른지 확인해 보았다(표 36).

표 36: 이중 출판 저자 vs. 전체 KCI 저자 특성 비교

지표	이중 출판	전체 KCI
N (고유 저자)	269	2,284
SKY 학부 (%)	43.3	23.6
미국 박사 (%)	17.4	8.0
한국 박사 (%)	30.4	26.7
저자당 평균 논문 수	4.2	3.3
KCI 양적 방법 비율 (%)	22.4	21.7

이중 출판 저자는 SKY 학부 출신(43.3% vs. 23.6%)과 미국 박사학위자(17.4% vs. 8.0%) 비율이 높아 엘리트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러나 KCI 논문에서의 양적 방법 사용률은 거의 동일하다(22.4% vs. 21.7%, $\Delta = 0.7\%p$). 이는 저자 내 분석에서 관찰된 차이가 이중 출판 저자의 기존 방법론 선호 차이가 아닌 출판 장소에 따른 차이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A.7.5 저자 내 분석 전체 결과

표 37은 저자 내 분석의 전체 결과를 제시한다.

표 37: 저자 내 분석: 연구비 지원 vs. 미지원 논문 (KCI 연구비 표본)

결과	미지원	지원	차이	p값
양적 (%)	18.5	21.2	+2.7	0.142
인과추론 사용 (%)	2.1	3.8	+1.7	0.089
한국 중심 (%)	68.2	61.5	-6.7	0.024
토픽 고유성 (KCI-SSCI <i>r</i>)	0.82	0.71	-0.11	0.056
N (논문 쌍)	1,245	1,245		
N (고유 저자)	892			

저자 내 비교에서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른 양적 방법론 차이(+2.7%p)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0.142$). 유의한 차이는 지리적 초점에서 나타난다: 연구비 지원 논문은 한국 중심 비율이 낮다(-6.7%p, $p=0.024$). 연구비가 국제적 주제 선택을 촉진할 가능성은 있으나, 방법론 자체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A.7.6 저자 내 인용 분석

표 38는 동일 저자가 색인별로 다른 저작을 인용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표 38: 저자 내 인용 비교: 동일 저자가 색인별로 다른 저작 인용

저작	유형	KCI	SSCI	정규화 차이
상위 5개 KCI 선호 저작				
DOWNS 1957	정전 (민주주의 이론)	38	11	+0.55
CONVERSE 1964	정전 (정치행태)	10	4	+0.43
LEVITSKY 2018	비교정치	10	4	+0.43
DUCH 2008	경험적 (경제투표)	7	3	+0.40
CAMPBELL 1960	정전 (정치행태)	29	16	+0.29
상위 5개 SSCI 선호 저작				
FEARON 1994	경험적 IR	3	44	-0.87
MESQUITA 2003	경험적 (선택자이론)	4	33	-0.78
FEARON 1997	경험적 IR	3	17	-0.70
GEDDES 2014	경험적 (권위주의)	4	20	-0.67
POOLE 1997	방법론	3	14	-0.65

동일 저자라도 색인에 따라 인용하는 지적 기반이 다르다. KCI에서는 Downs, Campbell, Converse 같은 고전을 주로 인용하고, SSCI에서는 Fearon, Geddes 같은 현대 경험 연구나 Poole 같은 방법론 논문을 더 많이 인용한다. 방법론적 차이가 인용 관행 차이와 맞물려 있으며, 두 색인이 서로 다른 지적 전통에 기대고 있다.

A.7.7 인용 영향력 분석

표 39는 방법론, 저자 출신, 연구비 상태별 인용 영향력을 보여준다.

표 39: 방법론, 저자 출신, 연구비 상태별 인용 영향력

비교 집단	N	평균	중앙값	효과	p
<i>KCI</i> 내: 방법론					
양적	1,956	3.69	1	$d = 0.16$	<.001
비양적	7,361	2.84	1		
<i>SSCI</i> 내: 저자 출신					
한국 소속	783	6.61	3	비율 = 0.59	<.001
비한국	77,776	11.20	4		
<i>KCI</i> 내: 연구비 상태					
수혜	2,582	3.90	2	$d = 0.19$	<.001
미수혜	3,531	2.91	1		

해석. 인용 영향력 분석은 세 가지 패턴을 보여준다. 첫째, KCI 내에서 양적 논문이 비양적 논문보다 약간 더 높은 인용을 받으나 효과 크기는 작다($d=0.16$). 둘째, SSCI 내에서 한국 소속 저자 논문은 비한국 저자 논문보다 낮은 인용을 받아(비율=0.59), 한국 학자의 SSCI 진입이 인용 영향력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비 수혜 논문이 약간 더 높은 인용을 받으나($d=0.19$), 인과적 해석에는 선택 편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A.8 강건성 검토

본 절에서는 주요 분석의 강건성을 검토하였다. 두 가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연구비-방법론 분해의 표본 제한별 민감도, (2) 한국 저자 식별 방법에 따른 방법론 차이 민감도. 결과는 대안적 명세에 걸쳐 강건하다.

A.8.1 연구비-방법론 분해 민감도

본 절에서는 본문에서 제시된 연구비-방법론 분해의 상세한 방법론과 민감도 분석을 제공하였다. 분석의 중심 질문은: 연구비 수혜자와 미수혜자 간 양적 방법론 차이(횡단면 관찰치 +10.4%p)가 연구비의 인과적 효과인가, 아니면 방법론 역량이 높은 연구자가 연구비도 더 잘 수혜하는 선택 효과인가이다.

연구비-방법론 관계를 인과 효과와 선택 효과로 나누기 위해 저자 내 비교를 활용하였다. 508명의 저자가 같은 기간에 연구비 지원 논문과 미지원 논문을 모두 출판하였는데, 이들 사이의 차이는 훈련·역량·선호 같은 시간불변적 저자 특성을 통제하므로 연구비의 인과적 효과에 더 가깝다.

표 40: 연구비-방법론 분해: 선택 vs. 처치 효과

구성요소	점추정	95% CI	비율
관찰된 차이			
횡단면 (수혜 vs. 미수혜)	+10.4%p	[+7.8, +13.0]	100%
분해			
저자 내 차이 (처치 효과)	+2.7%p	[-0.3, +5.7]	26%
잔차 (선택 효과)	+7.7%p	[+4.7, +10.7]	74%
선택 효과 비율 신뢰구간			
점추정	74%		
95% 신뢰구간	[45%, 100%]		

선택 효과 비율의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1. 횡단면 차이(+10.4%p)와 저자 내 차이(+2.7%p)를 각각 추정
2. 저자 내 차이의 95% CI는 [-0.3, +5.7%p]
3. 선택 비율 = (횡단면 - 저자 내) / 횡단면
4. 저자 내 차이 CI의 상한(+5.7%p)에서: 선택 비율 = $(10.4 - 5.7) / 10.4 = 45\%$
5. 저자 내 차이 CI의 하한(-0.3%p)에서: 선택 비율 = $(10.4 - (-0.3)) / 10.4 = 103\%$
→ 100%로 절단

따라서 선택 효과 비율의 95% CI는 [45%, 100%]이다. 이 넓은 신뢰구간은 현재 데이터로는 선택과 처치 효과의 상대적 기여를 정밀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안적 명세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연구비-방법론 분해의 대안적 명세별 민감도

명세	N (저자)	저자 내 Δ	선택 비율	p값
기준선				
전체 표본	508	+2.7%p	74%	0.078
논문 수 제한				
≥2 논문/조건	181	+2.6%p	75%	0.179
≥3 논문/조건	72	+1.0%p	90%	0.741

해석. 모든 명세에서 선택 효과가 과반(74-90%)을 차지하는 패턴이 일관된다. 표본 수 제한을 강화할수록(저자당 더 많은 논문 필요) 선택 비율이 증가하고 p값이 상승하여 불확실성이 커진다. 주요 결론은 선택 효과가 존재하며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정확한 크기가 74%라는 것이 아니다. 넓은 신뢰구간(45-100%)은 처치 효과가 0에서 55% 사이일 가능성을 포함한다.

A.8.2 한국 저자 식별 방법 민감도

SSCI에서 한국 소속 저자를 식별하는 대안적 방법에 따른 방법론 차이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세 가지 소속 기반 식별 방법을 비교하였다: (1) 엄격 기준(주요 15개 대학만), (2) 기준선(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3) 완화 기준(지방대학, 정부기관 포함).

표 42: 한국 저자 식별 방법에 따른 양적 방법론 비율 비교

식별 방법	N (한국)	한국 양적%	비한국 양적%	차이	p값
엄격 (주요 15개 대학)	590	62.9%	42.1%	+20.8%p	<0.001
기준선 (본문 사용)	969	61.6%	42.0%	+19.6%p	<0.001
완화 (확대 기관 포함)	1,185	60.0%	42.0%	+18.0%p	<0.001

SSCI-한국 저자가 SSCI-비한국 저자보다 양적 방법을 더 많이 쓴다는 결과는 식별 방법과 무관하게 강건하다. 세 명세 모두에서 18-21%p 차이가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p < 0.001$). 엄격한 기준(주요 대학만)에서 +20.8%p로 가장 크고, 완화 기준에서도 +18.0%p로 여전히 크다.

A.9 정책적 맥락 상세

본 절에서는 본문 정책적 고려 절에서 요약된 연구비 및 국제 비교 데이터의 상세를 제공하였다.

A.9.1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감소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2023–2025년 사이 30.8% 감소하였으며, 신진연구자 프로그램은 34.0% 감소하였다.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정부 R&D는 전체 R&D의 1% 미만으로 하락하여 프랑스(18.6%)나 미국(11.2%)을 크게 하회한다.

A.9.2 국제 비교

Moustafa (2025)는 1965–2020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정치학 연구비 중 94.7%가 양적 방법론에 배분되었음을 보여준다. SSCI의 양적 지배는 저자 선호만의 산물이 아니라 연구비 구조가 수십 년에 걸쳐 형성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이 인문사회과학 연구비를 축소하면서 SSCI 출판을 강조하는 현상은, 방법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축소와 국제 출판 요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A.10 한계 상세

본 절에서는 본문 논의 절에서 요약된 한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A.10.1 측정 한계

방법론 분류는 전문이 아닌 초록의 LLM 기반 코딩에 의존한다. 한국어 작문 관습이 방법론 정보를 초록이 아닌 방법론 절에 배치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KCI 방법론을 과소계산한다. LLM이 주로 영어 코퍼스로 훈련되어 언어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 코딩 초록에 대해 검증하였으나(macro F1 = 0.79) 전문 코딩에 대해서는 아니다.

관찰된 차이의 큰 규모는 측정 오차를 유일한 설명으로 하기 어렵게 하나, 의미있는 편향은 가능하다.

인과추론 방법 탐지는 초록의 키워드 패턴에 기반하며, 이는 거의 확실히 KCI를 과소계산한다.

A.10.2 표본 선택 한계

여러 표본에서 선택 편향이 누적되었다. SSCI-한국 표본(N = 728)은 전적으로 성공적 출판물로 구성된다. 연결 가능한 표본으로의 선택이 다단계로 누적된다. 각 단계가 엘리트·국제연결 학자 방향으로 선택을 유도하므로, 저자 내 분석 결과를 한국 정치학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표 36(p. 50)은 이중 출판 저자(N = 269)와 전체 KCI 저자(N = 2,284)의 특성을 비교한다. 이중 출판 저자는 SKY 학부 출신 비율(43.3% vs. 23.6%)과 미국 박사학위 비율(17.4% vs. 8.0%)이 높아 엘리트 선발 편향을 확인한다. 그러나 KCI 논문에서의 양적 방법 사용률은 거의 동일하다(22.4% vs. 21.7%, $\Delta = 0.7\%p$). 이는 저자 내 분석에서 관찰된 41.3%p 차이가 이중 출판 저자의 기존 방법론 선호 차이가 아닌 출판 장소에 따른 차이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A.10.3 SSCI 이질성

KCI-SSCI 비교는 색인 효과, 언어 효과, 독자 효과, 범위 효과를 혼합한다. 특히 173개 SSCI 학술지는 상이한 국가적·지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 주류 학술지는 60.5% 양적, 유럽 학술지는 60.3%, 영국 학술지는 46.4%, 국제/비교 학술지는 36.0%, 지역연구 학술지는 28.6%의 양적 비율을 보인다. KCI(21.2%)는 SSCI 지역연구 학술지(28.6%)와 7.4%p 차이로 가장 유사하다.

A.10.4 인용 분석 한계

색인 간 인용 비교는 방법론적으로 난해하다. KCI와 SSCI는 상이한 독자 규모를 가진 상이한 생태계에서 운영된다.

A.10.5 기타 한계

주요 한계는 투고·심사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 학술지가 편집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KCI의 방법론 분포가 저자의 자기 선택인지 심사 과정의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분석은 2015–2024년을 다루며, 이는 장기 추세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KCI와 SSCI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나, KCI는 교육, 정책 참여, 공적 담론 기능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참고 문헌

Mimno, David, Hanna M. Wallach, Edmund Talley, Miriam Leenders and Andrew McCallum. 2011. Optimizing Semantic Coherence in Topic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262–272.

Moustafa, Tamir. 2025. “Political Science as a Dependent Variable: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nd the Shaping of a Discipline.” *Perspectives on Politics* 23(2):665–685.

Roberts, Margaret E., Brandon M. Stewart and Dustin Tingley. 2019. “stm: An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91(2):1–40.

신명순. 2024. “한국 비교정치 연구의 변화와 발전: 1955–70년, 1971–80년, 1981–90년 시기.” *국제정치논총* 64(3):259–296.